

‘남악 신도시 효과’ 무안군 젊어졌다

전국 군 단위 중 유일 고령자 줄고 유아·청소년 증가

남악 젊은층 유입... 2008년 8347명서 올 3만1796명

전남도청과 공공기관 입주로 형성된 남악 신도시가 소재한 무안군이 젊어지고 있다. 대다수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가운데 무안은 전국 군 단위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유아·청소년은 늘고 고령자는 줄어든 상태이다.

30일 행정자치부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무안군의 0~14세 인구는 전체 8만2409명 중 1만2331명(15.0%)이었다. 같은 연례 인구 구성비는 2008년(14.9%)보다 0.1% 포인트가 증가해 부산 강서구(8.7%)와 기장군(2.5%)에 이어 세 번째로 증가 폭이 컸다.

반면 무안군의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난 4월 말 1만6376명으로 19.9%를 기록해 2008년(20.2%)보다 0.3% 포인트 줄어 들었다. 고령자 비중 감소 폭은 부산 강서구(4.1% 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세 번째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들어선 나주시(0.2% 포인트)였다.

무안은 부산 강서구와 함께 고령자 비중은 줄고 유아·청소년은 늘어나는 두 가지 현상을 모두 보였다. 증감률이 강서구에는

못 미쳤지만 군 단위에서는 무안군이 유일했다. 이같은 현상은 전남도청 등 공공기관이

입주해 젊은층 유입이 이어진 남악 신도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무안군은 분석했다.

남악 신도시 인구는 2008년 8347명에서 지난 4월 말 현재 3만1796명으로 크게 늘었다.

무안군 관계자는 “2021년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오토지구 개발사업, 호남고속철

2단계 노선 무안국제공항 경유 등이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젊은층 등 인구 유입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만 군내 농촌 지역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진단했다. /윤현석기자 chadol@연합뉴스



무안군이 전국 군 단위지역 중 유일하게 유아·청소년 비중은 늘고 고령자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사진은 무안 남악신도시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전남도 주요 정책 도민이 직접 평가

꿈사다리 공부방 등 20개 핵심사업

정책 제언·건의 도정 반영

도민평가단이 올해 전남도의 주요 정책을 직접 평가한다. 전남도는 주요 정책제언과 건의를 도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30일 “도민 50명으로 구성된 도민평가단이 올해 추진하는 ‘꿈사다리 공부방’, ‘광역치매센터 운영’, ‘국립립 어린이집 확충’,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등 20개 핵심사업을 직접 평가한다”고 밝혔다.

평가단은 안전행정환경분과, 경제관광문화분과, 복지여성분과 등 5개 분과로 나뉘어 오는 9월까지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추진 사항과 효과성, 만족도 등을 종합 평가할 계획이다. 경제관광문화분과는 첫 날인 30일 광주, 곡성에서 ‘전남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 운영’과 ‘섬진강 기차마을 체류형 관광클러스터 조성’을 평가했다.

건설소방분과는 오는 6월 2일 순천과 곡성을 방문해 ‘지역 교통안전 환경 개

선사업’과 ‘지방도 보행로 및 갖길 정비사업’을 평가하는 등 분과별로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는 정책제언과 건의 등의 방식으로 도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지난해 도민평가단의 현장평가에서 제안받은 37건의 정책제언 또는 건의를 도정에 반영한 바 있다.

전남도는 이번 평가를 통해 도민들의 눈높이에서 도정 주요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보다 더 많은 사업에서 도민들의 체감도를 파악하고 도정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평가를 지난해 10개에서 20개 사업으로 확대 실시한다.

문금주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현장 점검 등 도민평가단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평가에서 제시된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사업을 더욱 알차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시 공공요금 연간 200억 육박

대부분 국가통신망·CCTV 관제망 임차료... 자체망 전환 시급

광주시가 납부하고 있는 공공요금에 해마다 2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가정보통신망과 폐쇄회로(CCTV) 관제망 임차료 등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자체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가 납부한 공공요금은 2014년 182억원, 2015년 191억원, 지난해 185억원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지난해 전기, 가스, 우편요금 등 비(非)전산 분야를 뺀 행정통신망과 관련한 공공요금은 120억원으로, 본정이 56억원, 출연기관 42억원, 직속기관·사업소 21억원, 출자기관 9300만원 등이다.

분야별로는 CCTV관제센터가 27억원으로 가장 많고 ▲상수도망 사용료 12억원 ▲가로등망 9억8000만원 ▲국가정보통신망 9억5000만원 ▲전화요금 4억 7000만원 ▲인터넷망 3억4000만원 ▲시내버스 도착 안내시스템(BIS) 1억 74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이 때문에 부담액이 상대적으로 큰 행정정보통신망을 현재의 임차망에서 자체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각 기관별, 부서별로 빌려 쓰는 행정

통신망을 하나로 묶어 ‘정보고속도로’라 불리는 백본망(Backbone network, 기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본망은 이동통신망, 인터넷, 전화망, DMB, 케이블TV망 등 서로 다른 네트워크들을 하나로 통합한 광대역통합망(BcN)의 중추가 되는 최상위 네트워크를 일컫는다.

부산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자체망을 운영해 연간 141억원의 예산을 아끼고 있으며 대전, 세종, 서울 서초구, 경기 성남시 등도 운용 중이다. 인천과 대구 등은 추진 중이다.

반면 광주는 국가정보통신망을 비롯한 BIS, CCTV 관제망, 가로등과 상수도 관제망 등 행정정보통신망을 국내 대형 통신사업자(SK, KT, LG) 3사와 별도 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각각 지불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회 주경남(민중·서구4) 의원은 이날 제25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당장 내년 2월부터 계약기간 5년이 만료되는 국가정보통신망과 일부 CCTV 관제망부터라도 자체망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대선 반성한다면서... 한국당 토론회 ‘난장판’

“밥그릇 탕” “마이크 뺏어” “죽일 X” 고함·맞고함

“새누리당이 왜 망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밥그릇 챙기면서 분란 일어나고 탄핵되고 자유한국당이라는 이상한 당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만하세요.” “마이크 뺏어오.”

자유한국당이 30일 제19대 대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가 난장판으로 변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과 윤창현 시립대학교수, 황태순 정치평론가 등 외부전문가들의 대선 결과 평가로 시작했다.

배 본부장은 “안정희구 성향이 강한 가정주부들이 새누리당을 강력히 견인해왔는데 사실상 바닥까지 무너진 상태”라면서 “안보 이슈를 설득적으로 가져가지 못했고, 최순실 국정농단을 명쾌하게 풀어내지 못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윤 교수는 “보수는 부패로,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보수정당이 부패와 분열로 망했다”면서 “최순실 게이트로 부패 이미지가 생겼고 탄핵을 들

리산 과정에서 분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외부전문가들과의 질의·응답 순서에서 한 당협위원장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매우 비겁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받을만한 짓거리를 했느냐. 죽일 X이라고 할 만큼 잘못 했느냐”라고 날을 세우면서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다음 마이크를 건네받은 또 다른 당협위원장은 “작년 총선에서도 내가 잘못해서 됐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바른정당 갔다가 왔으면서 반성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성토했다.

이후 한 중앙위 당직자가 박 전 대통령 파면에까지 이른 일련의 사태를 언급하면서 “박근혜 사진 걸고 당선된 사람들이 패전한 행동을 하고 자기 밥그릇을 챙긴다”라고 말하면서 계속 고성을 질렀다.

이에 청중석에서 “그만하세요” “마이크 뺏어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사리 분별도 할 줄 모르고” 등의 맞고함을 치면서 불협화음 분위기가 잠시 연출됐다. /연합뉴스

정의당 차기 원내대표 노회찬 의원 재선출

정의당은 30일 차기 원내대표로 3선의 의원 노회찬 현 원내대표를 재선출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노 원내대표 재선출에 합의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에 앞장서겠다. 여의도 정치가 공격과 수비를 바꿔가며 낡은 정치를 재생산하는 악순환을 끊어내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야정 상설 국정협약체에 적극 참여하겠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진보개혁의



견인자 역할을 수행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힘이 실릴 수 있게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쓴소리도 게을리하지 않겠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개혁의 속도가

방향이 국민의 뜻과 다르다면 호되게 질책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 노력해도 성취는 없고, 차별에 눈물 흘리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jzgolee@kwangju.co.kr

전남도, 루마니아 클루지주와 우호교류 추진

신재생에너지·농업분야

전남도가 루마니아 클루지주와 신재생에너지·농업 분야 우호교류를 본격 추진키로 하는 등 동유럽 국가와 국제 우호교류를 다변화하고 있다.

전남도는 30일 “우기중 전남도 정부부지사들 단장으로 한 동유럽 순방단이 29일(이하 현지 시각) 루마니아 클루지주를 방문해 마리우스 문장 클루지주의회 부의장

겸 부지사를 만나 우호교류 회담을 열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와 농업 분야 실무진들이 참석한 회담에서 두 지역 대표는 협력사업 발굴과 추진 방안을 논의한 후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우호교류 의향서’를 교환했다. 전남도와 클루지주는 지난 2015년부터 두 분야 실무협의를 진행,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됐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지사 직영점 오픈

“서울 본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무료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